

## 직접인용부호 번역 교육 — 북미정상회담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 \*

최 경 희  
(평택대)

### 1. 들어가는 말

뉴스 텍스트는 번역 수업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텍스트 중 하나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뉴스 텍스트는 국내 통번역 학부 과정에서 개설되는 번역 수업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일반 번역 수업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뉴스 텍스트 번역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뉴스 기사 제목 번역(강지혜 2008a), 문체 및 번역 품질에 대한 연구(신진원 2014, 홍정민 2014), 문화 및 이데올로기 관련 연구(김순미 2013, 박지영 2017), 코퍼스를 이용한 연구(최희경 2016) 등 다양한 세부 분야의 뉴스 기사 번역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뉴스 텍스트에서 인용 부호의 번역에 대한 연구, 특히 한국어 기사와 영어 기사 간 직접인용 부호의 번역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드문 것으로 파

---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평택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악된다(예외: 오미형 2008, 강지혜 2008b). 인용 부호는 문장 부호의 하나로, 간단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뉴스 텍스트가 말에 대한 말(talk about talk)이라고 할 만큼 인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크다(Bell 1991: 52).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부호의 번역에 대한 연구, 특히 번역교실에서 뉴스 기사 내 직접 인용 부호의 번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강의하던 영한번역 수업시간에도 직접인용 부호 번역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영어 원문에 있는 직접인용 부호를 모두 삭제하고 번역을 한 경우였다. 이유를 확인해보니 영어 원어민 교수가 지도하던 한영번역 수업 시간에 담당 교수의 조언에 따라 한국어 원문에 있던 직접인용 부호를 모두 삭제하던 습관이 영한번역 수업에 옮겨온 것이었다. 언어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적용한 학생의 부주의는 차치하고라도 수년간 한영수업을 지도하던 영어 원어민 교수가 한국어 원문에 있는 직접 인용부호를 삭제하도록 지도한 점이 납득이 되지 않았다. 이에 뉴스 텍스트 번역 시 인용부호와 관련하여 번역교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찾아 보았으나 찾기가 쉽지 않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직접인용 부호 번역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낀 바 있다.

상기의 경험을 계기로 시작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뉴스 텍스트 번역 시 직접인용 부호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직접인용 부호 삭제가 가능하다면, 언어방향별로 다른 전략이 필요한가?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일부 신문사에서 뉴스 텍스트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번역문에는 원문에 등장하는 직접인용 부호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먼저, 뉴스 기사에 나오는 직접인용 부호 형태를 살펴보고 특이한 점이 있는지 파악함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직접인용 부호 번역과 관련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북미회담 관련 뉴스 기사이며 한국어 기사와 영어 기사 및 한영 번역 기사를 분석 비교해본다.

## 2. 뉴스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직접인용 부호: 한국어 기사

뉴스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직접인용 부호는 영어와 한국어의 양상이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영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직접인용 부호의 사용과 대체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직접인용 부호 형식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국어문법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직접인용 부호는 화자가 발화한 내용을 “따옴표를 써서 인용되는 원 표현이 원형 그대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서정수 1994/2006: 1300). 아래의 예문 1을 살펴보면, 직접 인용부호가 사용된 첫 문장의 경우 간접인용을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문장과 달리 큰 따옴표가 사용되고 있고, 그 안에 인용된 발화내용이 화자를 지칭하는 말(‘나’)이나 청자대우법(반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직접인용 조사 ‘라고(또는 ‘하고’)'를 사용하고 있다.

### 예문 1

1. 철우는 “나는 늘 이렇게 즐거워.”라고 말했다.
2. 철우는 (그가) 늘 즐겁다고 말했다. (서정수 1994/2006: 1300)

그런데, 뉴스 텍스트의 경우는 상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아래의 예문 2를 살펴보자.

### 예문 2

1. 국회 건설위도 “관계법에 하자가 없다면 주택 조합에 택지를 특별 공급하라”고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2. 한 할머니는 “전쟁은 오래전에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다.  
(김정남 2005: 282, 291)

예문 2.1에서는 분명히 직접 인용에 사용되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존댓말로 표현되어야 할 청자 대우법이 간접인용문에 사용되는 비존대(하라체)로 표현되어 있고 인용조사도 직접인용 시 사용되는 ‘라고’ 또는 ‘하고’가 아닌 간접인용에서 사용되는 ‘고’로 되어 있다. 더욱이 예문 2.2의 경우는 인용

어미 부분이 명사문에(‘...지나간 일’) ‘이다’와 간접인용 조사 ‘고’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즉, 뉴스 텍스트의 경우는 청자 대우법이 중화되고 간접 인용 조사가 사용되며 명사문에 ‘이다’와 인용 조사를 사용하는 등 국어 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과는 상당히 다른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김정남 2005). 이로 미루어볼 때 뉴스 텍스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직접인용은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혼합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뉴스 텍스트 직접인용문의 기능과 신문사 가이드라인

#### 3.1 뉴스텍스트 직접인용문의 기능

반 다이크(van Dijk 1988: 86-87)는 뉴스 텍스트 상 직접인용문의 기능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직접인용을 사용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기자가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보도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민감한 사안의 보도 시 이해당사자로부터 받게 될 비방이나 소송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김용진 2004: 20 참조). 반 다이크의 이러한 방향 제시는 오늘날 직접 인용 관련 뉴스 텍스트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일례로, 뉴스 텍스트에서의 직접인용문에 대한 반 다이크의 두 가지 원칙은 벨(Bell 1991: 207-209)에서 확대 발전하여 다음의 세 가지 기능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다.

첫째, 인용되는 내용이 뉴스 당사자 자신의 말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보는 사실성 기능

둘째, 인용되는 말이 기자나 뉴스 보도 매체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되는 말과 거리를 두는 중립성 기능

셋째, 밋밋하기 쉬운 뉴스 기사에 생생하고 다채로운 맛을 더해주는 미학적 기능 (김용진 2004: 20 참조)

따라서, 뉴스 텍스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직접인용은 직접인용을 제공한 당사자의 말로서 기사의 신뢰성을 높여 주며, 직접인용을 기사에 실은 보도자는

인용 내용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으며, 일부 미학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직접인용문 작성 및 직접인용 부호 사용에 있어서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 3.1 직접인용 부호 사용지침

뉴스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직접인용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으로 미국에서 취재 보도론 교과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뉴스의 작성과 보도(Writing and Reporting News - A Coaching Method)>>와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세계 유수 뉴스 매체에서 발간하는 스타일 가이드를 살펴보면 직접인용 부호를 남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여러 스타일 가이드의 내용을 잘 집약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옵서버 스타일 가이드는 단어 하나라도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 인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sup>1)</sup>. <<뉴스의 작성과 보도>>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가디언 및 옵서버 스타일 가이드의 해당 내용은 각각 아래와 같다<sup>2)</sup>.

[...] 취재원이 실제로 말한 내용이 아니라면, 기자가 임의로 특정한 말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부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Rich 1999: 48)

[...] 인용부호 안에 넣을 내용은 화자가 실제로 언급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음(망설이는 말)이나 예함(헛기침)과 같은 말은 제거하고 잘못된 어법은 개선해야 하지만, 화자가 사용한 말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확실치 않으면 간접 인용을 사용한다. (가디언과 옵서버 스타일 가이드<sup>3)</sup>)

- 1) 같은 직접인용이라도 보도자의 틀에 맞추어 표현이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보고가 있으나(김용진 2004: 29), 본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화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취지에 중점을 둔다.
- 2) 가디언 및 옵서버 스타일 가이드는 아래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image.guardian.co.uk/sys-files/Guardian/documents/2004/07/15/styleguidepdfjuly2004.pdf>.
- 3) 가디언과 옵서버 이외에도 로이터통신, AP통신, 뉴욕타임즈 등에서도 스타일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https://www.trust.org/contentAsset/raw-data/652966abc90b-4252-b4a5-db8ed1d438ce/file>, AP통신: <https://www.trust.org/contentAsset/raw-data/652966abc90b-4252-b4a5-db8ed1d438ce/file>, 뉴욕타임즈: <https://www.trust.org/contentAsset/>

이처럼 스타일 가이드가 공개된 영어권 뉴스 매체와 달리, 우리나라 언론사에는 문장부호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있어도 상세하지 않다. 이에 따라 기자들은 일일이 기사를 보고서 스스로 터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기 국내 우수 외신 기자로 활동한 전문 번역가와와의 이메일 교신 내용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장부호 관련 가이드라인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 ]고 실제로 공식적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언론사는 도제식으로[... ] 다른 기사를 보고 스스로 배우는 관행이 더 강합니다. [...] 각 언론사 기사를 보면서 바텀업 방식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듯합니다.<sup>4)</sup>

상기 내용은 언론사에서 제시하는 스타일가이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과는 대비되지만 현재 국내 상황을 반영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이메일 내용의 권고에 따라 특히 한국어 기사의 경우 수집한 기사 내용을 근거로 추론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더불어, 바텀업 방식에 추가하여, 하기에 제시될 국내 뉴스 관행에 대한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을 취했다.

#### 4. 뉴스 텍스트에 나타나는 직접인용문 관련 선행연구

뉴스 텍스트에 나타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실제 뉴스 텍스트 상에 나타난 직접인용 비율에 대한 연구자료로 미국 신문사 직접인용 비율을 조사한 연구(김용진 2004: 27)와 한국 신문사 직접인용 비율(김병건 2016: 123)이 있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미국 신문사와 한국 신문사의 직접인용 비율 차이가 있음

raw-data/652966ab-c90b-4252-b4a5-db8ed1d438ce/file

4) 이데일리, 로이터, 블룸버그 등 국내외 언론사에서 10년 간 기자로 활동한 홍정민 선생님과 2019년 8월 20일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임.

을 알 수 있다. 먼저, 김용진 2004에서는 미국 신문 3사의 직접인용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3사의 직접인용 비율은 평균 18%로 조사되었다. 이는 글래스고우 대학교 미디어 그룹(Glasgow University Media Group)(1980)에서 제시하는 적정 직접인용 비율 20% 선 안에 들어온 수치이다(김용진 2004: 27)

이에 비해 한국 신문사 직접인용 비율은(김병건 2016: 123)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도 속 인용문 글자 수 기준으로 볼 때 52.8%로 나타났다(문장 수 기준으로는 40.1%). 물론, 2년에 걸쳐 매년 9월에 무작위로 추출한 미국 신문 기사와, 대통령 시정연설 원문 및 이후 발간된 신문 기사를 사용한 한국 신문사의 데이터가 다르고 조사된 연도 역시 10여 년의 차이가 나는 등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18%와 52.8%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 즉, 한국 신문사의 직접 인용비율이 높게 나타난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뉴스 기사의 제목과 본문 두 부분으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목에 나타난 직접인용의 경우 한국 신문에 있어서 지나친 직접인용 부호의 사용이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지나친 인용은 한국 신문에 만연해있는 소위 따옴표(혹은 쌍따옴표) 저널리즘이라 불리는 현상에 해당한다. 따옴표 저널리즘은 직접인용문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현상으로서, 정보원의 발화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용 보도하는 행위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어이다(이준웅 외 2007: 67). 이는 본 연구의 데이터로 사용된 북미정상회담 관련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18년 12월 24일자 김정은 위원장의 12월 30일 한국 방문 관련 기사가 그것이다. 기사 제목이 <靑 “김정은, 12월 30일 1박 2일 남한 답방 유력”>으로 직접 인용문을 사용하고 있으나 청와대측이 같은 날 이를 부인했으며 실제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추측성 기사로 드러난 바 있다.<sup>5)</sup>

더욱이 기사 제목에 직접인용의 남용이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제목에 직접 인용된 내용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제목에

5) 해당 기사 출처: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301>,  
청와대 반박 기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81224000148>

직접인용이 등장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인 미국 신문의 경우와 달리, 한국 신문의 경우 제목에 직접 인용이 많을 뿐 아니라 이렇게 사용된 직접인용이 본문에 존재하지 않는 기사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이준웅 외 2007: 77). 지방선거 보도에서 직접 인용의 남용 현상을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기사의 내용을 요약한 요약형(약 40%), 기사 일부 내용을 추출한 “추출형”(약 1%), 그리고 창작에 가까운 작문형(4.5%)로 조사된 바 있어(이준웅 외 2007: 77), 직접인용 부호 사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옴표 저널리즘은 제목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 외에도 본문에 나오는 직접 인용의 남용현상으로도 분석되었다. 일례로 언급한 김병건 2015에서는 뉴스 기사에 직접 인용된 대통령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연설문 일부 내용의 요약, 생략, 그리고 여러 내용 중 한두 가지 선택 등 직접인용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직접인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왜곡 현상이 일어났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은 상기 제시된 제목에 나타난 직접 인용 분석(요약형, 추출형, 작문형)과도 유형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왜곡 현상을 이데올로기와도 연결시키고 있는데, 왜곡 현상이 해당 신문사의 이데올로기와 일치할 경우 의도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015: 13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접인용과 이데올로기는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뉴스 텍스트의 직접인용 비율과 관련된 사항은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하기에 제시될 연구방법과 함께 기사 전체 직접인용 비율과 제목에서의 직접 인용비율을 한국어 신문 기사와 미국 신문 기사 간 비교함으로써 직접 인용번역 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지 고찰해본다.

## 5. 데이터 및 연구방법

### 5.1 데이터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8년 6월 12일과 2019년 2월 27-28일에 열린 1,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보도 기사로 국내 신문사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경향신문, 그리고 미국 신문사로는 뉴욕타임즈지(The New York Times)와 워싱턴포스트지(The Washington Post)를 대상으로 했다.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한국어 기사와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번역본을 데이터의 일부에 포함시켰다. 북미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데이터로 사용한 이유는 북미정상회담이 전 세계적인 뉴스거리로 한국어 기사 및 영어 기사에 사용된 직접인용 부호를 비교하기가 용이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분석 분량은 5개 신문사 기사 및 경향신문 번역문을, 각각 1차 북미회담 20건, 2차 회담 20건으로 모두 합하여 240건을 분석했다.

## 5.2 연구방법

본 논문에 사용된 연구방법으로는 톰슨 1996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강지혜 2008b 참조). 인용의 특징을 분석한 본 문헌은 뉴스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아닌 문학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분석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방법의 큰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문헌에는 인용의 핵심을 이루는 네 가지 차원(dimension)을 제시하는데, 목소리(voice), 메시지(message), 신호(signal), 그리고 태도(attitude)가 그것이다. 목소리는 인용되는 내용의 주체 즉 발화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고, 메시지는 인용되는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는지, 신호는 인용되는 내용이 제시되는 언어나 문법 구조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태도는 인용되는 내용의 화자나 메시지에 대한 기자의 평가를 가리킨다. 이 네 가지 차원 중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분석 내용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는 목소리와 태도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번역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메시지는 주된 데이터 분석 후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가름하기로 한다.

먼저, 목소리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인용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으로 자신(self), 명시되지 않은 타자(specified other(s)), 그리고 명시된 타자(unspecified other(s))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용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보도의 규범(강지혜 2008b: 19)이며, 인용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직접인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지위가 높을수록 직접 인용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Glasgow University Media Group 1980: 163, van Dijk 1988: 87). 본 연구에서는 북미정상회담 관련 뉴스 텍스트에서 직접 인용된 목소리와 인용 빈도수를 조사함으로써 한국어 텍스트와 영어 텍스트 간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영한 및 한영 번역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태도는 인용하는 절에 나타나는 인용의 주체가 인용되는 내용이나 대상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인용하는 절에 포함된 동사에서 나타나는데(Bell 1991: 206-207, 김용진 2004: 25-6, 강지혜 2008b: 31) 이를 전달동사라고 한다. 전달동사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예. ‘말하다’, ‘전하다’, ‘덧붙이다’)와 태도가 들어있는 주관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예. ‘강조하다’, ‘설명하다’, ‘지적하다’, ‘비난하다’)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분류는 영어 신문의 1면을 장식하는 사건사고 기사(hard news), 즉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기사에서 대부분 전달동사 ‘say’를 사용하는 관행에서도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전달동사와 직접인용 간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고 번역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발견이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는 인용되는 내용이 실제 발생한 언어 사건과 근접한 정도에 따라 인용, 부연설명, 요약 등으로 나뉘지는데 그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용의 기능, 특히 인용되는 내용과 거리를 두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본 연구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인용되는 내용과 거리를 두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은 부분 인용(partial quotes)과 스케어 인용(scare quotes)으로 나뉘어지는데, 부분 인용은 말 그대로 전체 인용 내용 중 일부만 인용된 것을 가리키고 스케어 인용은 인용된 내용이 아니어서 인용부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관심이나 의심을 자아내기 위해 단어나 구에 직접 인용부호를 사용하는 경우이다(예. the US’ “maximum pressure”)(툼슨 1996: 513). 부분 인용과 스케어 인용은 하기에서 각각의 예문을 제시한 후 번역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뉴스 텍스트와 영어 뉴스 텍스트 간 기사 전체 직접인용 비율과 기사 제목에 사용된 직접인용을 비교해보고, 이후에 인용주체(목소리)를 조사한 후 전달동사(태도)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순서상으로는 먼저 한국 신문기사(조선일보, 중앙일보)와 미국 신문기사(뉴욕타임

즈, 워싱턴포스트)를 비교해보고, 이후 한국 신문기사(경향신문)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분석한다.

## 6. 데이터 분석 결과 및 토론

한국어 뉴스 텍스트와 영어 뉴스 텍스트 간 기사 전체 직접인용 비율은 한국어 텍스트의 비율이 유의미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기사 제목에 사용된 직접인용 비율의 경우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어 뉴스 텍스트에서의 직접인용 부호를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는 톰슨 1996의 4가지 차원 중 목소리, 태도 항목에 있어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 한국어 원문과 번역문의 경우, 한국 신문사 2개사(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기사보다는 영어 텍스트와의 격차가 크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결과는 비슷하게 나와 특히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번역에 있어서 직접인용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6.1 한국어 신문과 미국 신문 비교

#### 1) 기사 전체 인용 비율

본 연구에서 조사된 한국 신문사와 미국 신문사 간 인용 비율 차이는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신문 기사가 평균 27.8%, 미국 신문 기사는 19.5%로 8.3%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수치는 한국 신문사 직접인용 비율이 미국 신문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김용진 2004(미국 신문사 직접인용 비율: 18%, 한국 신문사 직접인용 비율: 52.8%)의 결과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8.3%의 차이 역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평균 16.4%로 조사돼 한국 신문사와의 인용비율이 11%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시 영어 도착어 텍스트에서 직접인용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 기사 전체 인용 비율: 신문 4사

신문사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미국신문 평균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신문 평균
인용비율	16.4%	22.5%	19.5%	27.8%	27.2%	27.8%

하지만, 한영번역 시 항상 도착어 텍스트에서 직접인용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어 기사의 인용비율이 높은 경우가 더 많지만(영어 기사의 경우는 53.4%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한국어 기사는 70%를 넘는 기사도 있음) 기사에 따라 인용 비율이 다르며, 한국어 텍스트에서의 직접 인용 비율이 영어 텍스트의 인용비율보다 적은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신문사와 미국 신문사 간 인용비율 차이는 한영 번역 시 일반적으로 직접인용 비율을 줄이는 것이 가해보이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는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 기사 제목에 사용된 직접인용

한국어 출발어 텍스트의 직접인용을 줄일 수 있는 대상으로, 먼저 기사 제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어 뉴스 기사와 영어 뉴스 기사의 제목에 사용된 직접인용을 살펴보면(〈표 2〉), 한국 신문사와 미국 신문사 간 직접인용 비율 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뉴스 기사의 제목에 나타난 직접 인용은 기사 80건 중 9건에 나타나서 11.3%인데 반해, 한국 신문사의 경우 기사제목에 나타난 직접인용 비율이 53.8%로 나타나 거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영어 뉴스에서는 직접 인용된 부분이 기사 내용에 존재하지만(9건 중 8건은 같고, 1건은 내용이 같으나 유사 표현 사용), 한국어 기사에서는 대부분 유사하거나 일부 단어만 동일하며, 심지어 내용이 기사 본문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16%) 있었다.

- 6) 제목에 전달동사 ‘say’/‘(말하다)’ 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직접인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예. ‘It’s about the attitude’: Trump says he doesn’t have to prepare much for his summit with North Korea’s leader, 트럼프 “김정은 단 한번의 기회…시간 낭비 않겠다”

〈표 2〉 기사 제목에 사용된 인용: 신문 4사

신문사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미국신문 평균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신문 평균
직접인용 사용 여부	5	4	4.5 =11.3%	20	23	21.5 =53.8%
본문 상 존재 유무	4: 같음 1: 다른 표현	같음		없거나, 유사, 일부 동일	없거나 유사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제목: “[...] Korea denuclearization”. 본문 “[...]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제목: 靑 “빅딜만이 성공인가... 빅딜 스물달 무 자르듯 자를 수 없어” 본문: “스몰딜’은 성공하지 못한 회담이 되는 것이고 빅딜만이 성공이라며 두 개념을 기계적으로 분절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상기 조사를 통해, 영어 뉴스 텍스트에 비해서 한국어 뉴스 텍스트 기사 제목에서 직접인용 부호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신문기사 제목에서 직접 인용부호가 오용 및 남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이준웅 외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기사 제목에 나오는 직접 인용을 번역할 때 영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에서보다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번역에서 직접인용 부호를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번역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한영 기사 제목의 번역 시 한국어 기사 본문에 기사 제목에 나온 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한 후에 직접 인용으로 번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목소리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목소리는 기사에 인용이 되는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즉 인용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인용의 네 가지 차원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높은 인물이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더 많이 직접 인용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신문 4사 모두 전문가나 정치인이 일반인에 비해 직접인용 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용 횟수가 가장 높은 순위인 1위에서 영어 신문기사와 한국어 신문기사 간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기사의 경우, 1위가 전문

가에 해당되는 반면에, 한국어 기사의 경우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화자의 발화내용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다(예. ‘미 정부와 가까운 외교소식통’). 참고로, 목소리와 전달동사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은 수작업 분석의 한계로 인하여 각 신문사 별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기사만 분석하였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전문가의 직접 인용 횟수가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는 39.8%이고 워싱턴포스트 기사에서는 30.7%로 1위를 차지한 반면에, 조선일보(26.6%)와, 중앙일보(29.7%)에서는 불특정 소식통이 1위로 기록되고 있으며, 전체 직접 인용의 1/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sup>7)</sup>. 2위는 미국 신문사의 경우 정치인·관료 그리고 한국 신문사의 경우는 전문가로 조사되었다. 물론, 본 연구에서 데이터로 사용한 영어 기사의 경우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을 사용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직접 인용을 사용하지 않고 간접 인용을 사용하고 있으며(예. ‘a US official said, veteran foreign policy specialists said, News reports have speculated’), 직접 인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용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표 3〉 목소리: 직접인용 대상, 신문 4사

순위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조선일보	중앙일보
1	전문가 39.8%	전문가 30.7%	불특정 소식통 26.6%	불특정 소식통 29.7%
2	정치인·관료 33.9%	정치인·관료 27.7%	전문가 20.8%	전문가 26.2%
3	트럼프 13.3%	트럼프 21.7%	언론 18.8%	트럼프 17.6%
4	문재인 5.8%	언론 6.2%	정치인·관료 17.8%	일반인 5.9%
5	김정은 3.9%	문재인 5.7%	기타 7%	정치인·관료 5.6%
6	언론 1.4%	일반인 4.5%	트럼프 5.4%	김정은 5.4%

7)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 최초로 풀리처 상을 수상한 바 있는 뉴욕타임즈지 최상훈 기자에 의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http://www.storyof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5>.

7	기타 1.4%	기타 3.4%	김정은 2.4%	언론 4.2%
8	일반인 0.5%	김정은 0.1%	문재인 0.6% 일반인 0.6%	문재인 3%
9				기타 2.4%

목소리와 관련된 이러한 조사결과를 번역에 적용해볼 때, 특히 한영 번역의 경우 한국어 텍스트에서 직접인용 부호를 사용하고 있는 불특정 소식통의 발화내용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올 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 출발어 텍스트에 나와있는 불특정 소식통에 대한 직접 인용의 경우 간접 인용으로 바꿔주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 4) 태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태도는 인용하는 절에 나오는 인용 주체가 인용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것으로, 표현 방식은 인용하는 절의 동사로 나타나는데 이는 객관적 전달동사(‘말하다’, ‘밝히다’, ‘덧붙이다’ 등)와 주관적 전달동사(‘설명하다’, ‘비난하다’ 등)로 나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에서 전달동사를 조사한 결과, 영어 기사와 한국어 기사 모두 객관적 전달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객관적 동사는 영어 기사의 경우는 ‘said(‘say’, ‘says’ 등 포함)’(뉴욕타임즈 58회, 워싱턴포스트 45회)였고 한국어 기사는 ‘했다(‘하다’, ‘이라며’<sup>8)</sup> 등 포함)’(조선일보 60회, 중앙일보 30회)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는 부분 인용은 제외한 결과로서, 하기에 스케어 인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영어 기사의 경우는 ‘told’, ‘added’, ‘tweeted’/‘reported’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한국어기사의 경우는 ‘말했다’, ‘전했다’, ‘보도했다’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태도와 관련하여 영어 기사와 한국어 기사 간 차이가 존재한다. 영

8) 본고에서는 ‘이라며’를 ‘이라고 하며’의 준말로 보고 ‘고 하(다)’가 생략된 형태로 파악하였음.

어 기사의 경우는 직접인용 시 하기 <표 4>에서 제시한 것 같이 모두 객관적 전달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어 기사의 경우 많지는 않지만 주관적 전달동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예. ‘지적했다’, ‘요구했다’, ‘경고했다’, ‘우려했다’, ‘강조했다’, ‘평가했다’ 등). 이를 번역교육에 적용해보면, 영미권 기사 특히 사건사고기사(hard news)에서 객관적 전달동사 ‘say’류(‘say’, ‘says’, ‘said’ 등)를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한국어로 번역 시 ‘설명하다’, ‘강조하다’ 등의 주관적 전달동사로 변경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시 한국어 텍스트의 직접인용절에 주관적 전달동사가 사용된 경우 객관적 전달동사 사용을 고려해 보직하다.

<표 4> 태도: 전달동사, 신문 4사

순위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조선일보	중앙일보
1	said 58회	said 45회	했다 60회	했다 30회
2	told 7회	told 8회	말했다 16회	말했다 10회
3	added 6회	added, wrote, ø 각 3회	보도했다 3회	설명했다, 전했다 각 3회
4	tweeted, ø 각 1회	tweeted, reported 각 1회	밝혔다, 덧붙였다, 화답했다, 요구했다, 전망했다, 경고했다, 우려했다 각 1회	부연했다, 언급했다, 보도했다, 알렸다, 발언했다, 밝혔다, 지적했다, 귀뜸했다, 강조했다, 해석했다, 분석했다, 관측했다, 내다봤다, 평가했다 각 1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국 신문 기사에 비해 한국 신문기사에서 직접인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기사 제목 인용비율과 출처가 불명확한 소식통에 의한 직접인용이 주원인으로 나타났고 직접인용을 이끄는 전달동사 사용도 일부 원인 제공을 하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을 번역교육에 적용하면, 주로 한영 번역에 적용할 수 있는데, 기사 제목의 번역 시 본

문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 기사 제목에 직접인용으로 처리된 경우에 직접 인용 부호를 삭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특정 소식통의 발화 내용 중에서 직접 인용으로 처리된 부분 역시 간접인용으로 바꿀 수 있으며, 주관적 전달동사가 사용된 곳에서는 직접인용 부호를 삭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영한 번역의 경우는 객관적 전달동사 번역 시 주관적 전달동사보다는 객관적 전달동사로의 번역을 고려해볼직하다. 4개 신문사에서 발간한 기사를 대상으로 내린 이러한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하기에서는 경향신문 기사 원문과 번역문을 가지고 기사 전체 직접인용 비율, 기사 제목에서의 직접인용 비율, 목소리, 그리고 전달동사의 번역이 이러한 잠정적 결론을 반영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의상 한국어 기사는 출발어 텍스트로 그리고 번역문은 도착어 텍스트로 칭하기로 한다.

## 6.2 경향신문 출발어 텍스트와 도착어 텍스트 비교

출발어 텍스트는 상기 제시한 직접인용 비율 및 인용의 차원(목소리, 태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신문 기사보다는 한국 신문 기사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착어 텍스트 역시 직접인용 비율 및 인용의 차원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보이나 출발어 텍스트 통계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출발어 텍스트에 나타난 통계를 조사하고 도착어 텍스트 통계치 및 해당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직접인용 비율

경향신문에 나타난 직접인용 비율은 다른 두 한국 신문과 달리 미국 신문 기사 평균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제목에 사용된 직접인용 비율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의 직접인용 비율은 21%로 한국 신문기사 평균(27.8%)보다 약 7% 낮고 미국 신문기사 평균(19.5)에 비해 1.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표 5>). 그런데 제목에 사용된 인용부호는 한국어 기사와 영어 기사 수치와 중간 정도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직접인용의 본문 존재 여부는 한국 신문 기사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표 5〉 기사 전체 인용 비율: 경향신문 포함

신문사	미국신문 평균	한국신문 평균	경향신문 출발어 텍스트
인용비율	19.5%	27.8%	21%

## 2) 제목에 사용된 직접인용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경향신문의 경우 제목에 사용된 직접인용 비율이 35%로 영어 기사에 비해(11.3%) 높고 한국어 기사보다는(53.8%) 낮다. 제목에 직접 인용된 13건 중에서 본문에 존재하는 것은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1건은 일부만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것을 직접 인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경향신문의 경우 직접인용 비율은 한국어 신문과 미국 신문 비율과 중간 지점에 위치하나, 다른 한국어 기사와 마찬가지로, 제목에 사용된 직접 인용은 대부분 본문 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6〉 기사 제목에 사용된 인용: 경향신문 포함

신문사	미국신문 평균	한국신문 평균	경향신문
직접인용 사용 여부	4.5 =11.3%	21.5 =53.8%	13 =32.5%
본문 상 존재 유무	4: 같음 1: 다른 표현	대부분 없거나 유사, 일부 동일	2: 같음 11: 유사하거나 일부 동일

제목에 나타난 직접인용이 도착어 텍스트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전체적으로 출발어 텍스트의 양상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착어 텍스트에서 직접 인용을 유지한 곳이 10곳이고, 직접인용 부호를 삭제한 곳은 3곳에 불과하다. 이밖에 도착어 텍스트에 나타난 특이 사항으로, 직접인용 건수가 15건으로 출발어 텍스트보다 많은데(13건)(〈표 7〉 참조) 이는 출발어 텍스트에 있는 작음따옴표가 도착어 텍스트에서 직접인용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기 〈표 7〉에 각각의 경우에 대한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9) 한국 신문에서 작음따옴표는 직접인용 안에 또 다른 직접인용이 사용되는 경우나 강조를 위해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은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더 자세히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표 7〉 도착어 텍스트: 제목에 사용된 직접인용 (출발어 13건, 도착어 15건)

유형	예문
출발어 직접인용부호 유지: 10건	문 대통령 “북 비핵화 상응조치로 한국 역할 활용해 달라” President Moon, “Take Advantage of South Korea when Considering a Response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출발어 직접인용부호 삭제: 3건	트럼프 “비핵화 많은 진전…2월 말 회담 장소 골랐다”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and Venue Set for N.K.-U.S. Summit at the End of February
출발어의 작은따옴표가 직접인용 부호로 바뀜: 5건	문대통령 공약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주목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Moon’s Pledge in the Spotlight

## 3) 목소리: 인용 대상

목소리는 직접 인용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이 그렇지 않은 대상에 비해 직접 인용이 더 많이 된다는 전제로 출발하였다. 다른 두 한국 신문의 경우 1위가 불특정 소식통인 것과 달리 경향신문은 1위는 아니지만 정치인·관료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8〉 참조). 이는 불특정 소식통이 순위에 들지 않은 미국 신문과 달리 높은 순위에 포함된 것이고, 전체 비율로 볼 때 24.8%를 기록하여 1위(30.6%)와의 차이도 크지 않아 불특정 소식통을 직접 인용으로 처리한 점이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목소리: 직접인용 대상, 경향신문 포함

순위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1	전문가 39.8%	전문가 30.7%	불특정 소식통 26.6%	불특정 소식통 29.7%	정치인·관료 30.6%
2	정치인·관료 33.9%	정치인·관료 27.7%	전문가 20.8%	전문가 26.2%	불특정 소식통 24.8%
3	트럼프 13.3%	트럼프 21.7%	언론 18.8%	트럼프 17.6%	트럼프 16.5%
4	문재인 5.8%	언론 6.2%	정치인·관료 17.8%	일반인 5.9%	전문가 11.2%
5	김정은 3.9%	문재인 5.7%	기타 7%	정치인·관료 5.6%	문재인 8.5%
6	언론	일반인	트럼프	김정은	김정은

	1.4%	4.5%	5.4%	5.4%	4.2%
7	기타 1.4%	기타 3.4%	김정은 2.4%	언론 4.2%	기타 3.6%
8	일반인 0.5%	김정은 0.1%	문재인 0.6% 일반인 0.6%	문재인 3%	언론 0.6%
9				기타 2.4%	

이러한 불특정 소식통의 직접인용 발화 내용은 도착어 텍스트에서도 대부분 직접인용으로 처리되고 있다. 출발어 텍스트에서 직접인용으로 처리된 26곳 중에서 22곳이 도착어 텍스트에서 직접인용으로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4곳은 직접인용 부호가 삭제되어 간접인용으로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도착어 텍스트로 번역 시 불특정 소식통의 인용이 간접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대체적으로 결여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아래 <표 9>에 나온 예 예문 중 첫 번째 예문은 직접인용 부호가 도착어 텍스트에 그대로 사용된 경우이고, 두 번째 예문은 직접인용 부호가 삭제된 경우이다.

<표 9> 도착어 텍스트: 목소리

유형	예문
직접인용 부호 유지: 22곳	한반도 안보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한 소식통은 7일 “북한은 미·중관계에서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라며 “북한은 미·중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충돌의 명분이 될 수도 있고 협력의 소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On February 7, one government source overlooking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aid, “North Korea is like a double-edged sword in U.S.-China relations.” He further said, “Depending on the strategic choice made by the U.S. and China, North Korea can become an excuse for conflict or the subject of cooperation.”
직접인용 부호 삭제: 4곳	트럼프 “비핵화 많은 진전...2월 말 회담 장소 골랐다”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and Venue Set for N.K.-U.S. Summit at the End of February

4) 태도: 전달 동사

경향신문에서 인용 주체가 인용되는 내용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태도 범주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와 유사하게, 대체적으로 객관적 전달동사를 사용하

고 있다. 객관적 전달동사로 ‘했다’가 가장 많고(50회), ‘말했다’(48회), ‘밝혔다’(17회) 등이 뒤를 잇고 있다(<표 10> 참조). 하지만 미국 신문과는 달리 직접인용절을 이끄는 주절에 주관적 전달동사도 간혹 사용되고 있는데, ‘주장했다’, ‘강조했다’, ‘반발했다’ 등이 각각 1회씩 사용되고 있다.

<표 10> 태도: 전달동사, 경향신문 포함

순위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1	said 58회	said 45회	했다 60회	했다 30회	했다 50회
2	told 7회	told 8회	말했다 16회	말했다 10회	말했다 48회
3	added 6회	added, wrote, ø 각 3회	보도했다 3회	설명했다, 전했다 각 3회	밝혔다 17회
4	tweeted, ø 각 1회	tweeted, reported 각 1회	밝혔다, 덧붙였다, 화답했다, 요구했다, 전망했다, 경고했다, 우려했다 각 1회	부연했다, 언급했다, 보도했다, 알렸다, 발언했다, 밝혔다, 지적했다, 귀뜸했다, 강조했다, 해석했다, 분석했다, 관측했다, 내다봤다, 평가했다 각 1회	ø 8회 ----- 평가했다 2회 ----- 답했다, 언급했다, 전했다, 발언했다, 주장했다, 강조했다, 반발했다, 지적했다 각 1회

전달동사(태도)와 관련하여 도착어 텍스트를 살펴보면, 출발어 텍스트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직접 인용절을 이끄는 주절의 전달동사가 객관적 전달동사로 이루어져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몇 곳 있는데, 직접인용 부호와 주관적 전달동사 모두를 유지하는 경우가 4곳, 직접인용 부호를 삭제하고 주관적 전달동사를 유지한 곳 4곳, 직접인용 부호를 유지하고 객관적 전달동사로 바꾼 곳 1곳, 기타 2곳이다(<표 11>). 이로 미루어볼 때 직접인용 부호에 객관적 인용동사와 주관적 인용동사 비율이 반반 정도로 되어 있어, 도착어 텍스트에서

전달동사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는 있으나 충분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한 예문은 아래와 같다.

〈표 11〉 도착어 텍스트: 태도, 전달동사 (출발어 26곳)

유형	예문
직접인용부호 및 주관적 전달동사 유지: 4곳	북한 외무성은 2010년 10월 발표한 담화에서 “신뢰가 없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In a statement released by North Korea’s foreign ministry in October 2010, North Korea argued, “Pursuing denuclearization without trust is the same as building a house without a foundation.”
직접인용부호 삭제하고 주관적 전달동사 유지: 4곳	김정은 위원장 “내년에도 자주 만나 평화·번영 진척시키자” Chairman Kim Jong-un Sends a Letter Suggesting Further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the New Year
직접인용부호 유지하고 객관적 전달동사로 바꿈: 1곳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나와 김 위원장이 첫 회담 때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중요한 공동 인식에 도달했다”면서 “최근 김 위원장이 한반도 대화와 정세 완화 방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As for the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Xi said, “Chairman Kim and I exchanged our views on this issue and reached an important agreement in the first summit.” He added, “Recently, Chairman Kim has made an active effort to engage in talk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ease the political tension, making progress.”
기타: 2곳	특히 청와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우리는 같은 페이지에 있다’는 비건 대표의 영어 표현을 소개했다. Cheong Wa Dae also said, “We confirmed once again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n the latest round of talks,” quoting Special Representative Beigun’s words, “We are on the same page.”

### 6.3 부분 인용 및 스케어 인용의 번역

상기 언급한 것처럼, 부분 인용은 인용 당사자가 발화한 전체 내용 중 일부만을 직접인용 부호로 처리한 것을 가리키며, 스케어 인용은 발화자의 발화 내용은 아니지만 직접인용 부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 둘 모두 기자가 해당 발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보여주는 중립성 기능(Bell 1991: 207-209)을 수행한다.

부분 인용과 스케어 인용의 번역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해볼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출발어 텍스트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두 번째는 도착어 텍스트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관점은 출발어 텍스트에 사용된 부분 인용 및 스케어 인용을 저자의 의도로 간주하여 도착어 텍스트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대부분의 뉴스 번역에서 따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의미가 도착어 텍스트에서 반드시 적용될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 특히 스케어 인용의 경우 출발어 텍스트에서는 책임소재 논쟁 우려가 있어 직접 인용을 했다 하더라도 도착어 텍스트에서는 더 이상 그럴 우려 즉 소송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직접 인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Mossop 1987: 20 참조, 강지혜 2008b: 10 재인용). 여기서 부분 인용 및 스케어 인용과 관련하여 언급할 사항은 영어 기사에서는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어 기사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상기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어 기사에서 작은따옴표는 직접인용 부호 안에 있는 단어 및 표현에 사용하거나 강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보다 자세한 조사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여기서는 한국어 기사와 영어 기사에서 사용된 부분 인용과 스케어 인용의 예를 제시하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하기 <표 12>에서 부분 인용의 경우는 전체 인용 내용 중 일부, 즉 “세계와의 정상적인 관계”만 직접 인용된 경우이고, 스케어 인용은 사실상 인용된 내용이 아니어서 직접 인용 부호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관심을 자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인용부호(“새로운 시장”)를 사용하고 있다.

<표 12> 부분 인용과 스케어 인용의 예

유형	예문
부분인용	한국어: 불턴 보좌관은 “세계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거론하며 [...] 영어: [...] insisted on “rapid denuclearization, total and complete, that won’t be extended over time”
스케어 인용	한국어: 김정은 신년사에 국내 원전업계 “새로운 시장” 촉각 영어: [...] easing up on “maximum pressure”

## 7. 결론 및 함의

본 논문에서는 뉴스 텍스트에서의 직접인용 부호 번역과 관련하여 직접인용 부호 삭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또 삭제가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다. 톰슨(1996)의 인용에 사용되는 4가지 차원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미국 신문 2개사와 한국 신문 2개사의 경우를 비교해본 후 제3의 한국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신문 기사와 영어 번역본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접인용부호 삭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직접 인용부호의 삭제는 특히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시 필요한 것으로, 삭제가 가능한 경우로는 신문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직접 인용부호의 경우 본문에 해당 내용이 똑같이 나올 때만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불특정 소식통의 발화 내용은 직접인용 부호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분 인용이나 스케어 인용이 아닌 절이나 문장 단위의 직접인용은 주관적 전달동사 사용 시 직접인용 부호를 삭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분인용이나 스케어 인용의 경우에는 주관적 전달동사와의 공존이 가능하므로 직접인용 부호를 삭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 텍스트에서의 직접인용 부호 번역에 대한 문제는 광범위한 번역의 제 문제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거나 직접인용 부호의 삭제 여부와 관련된 기계적인 작업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뉴스 기사에서 직접인용문 및 직접인용 부호가 갖는 신뢰성, 중립성, 사실성에 비추어볼 때 문장부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직접인용의 맥락은 직접인용(또는 직접인용 부호)의 사용과 더불어 번역교실에서 학습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그동안 직접인용 부호의 번역과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지침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는 그러한 방향으로 향해 가는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더 큰 데이터를 사용한 더 많은 연구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코퍼스 언어학을 사용한 직접인용 부호 관련 연구뿐 아니라 신문기사 특히 한국어 신문기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장부호 사용과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뉴스 텍스트에서의 문장부호 번역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지혜 (2008a) 「번역기사의 제목에 관한 연구: 『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 관련 번역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2): 7-43.
- 강지혜 (2008b) 「번역에서 인용의 문제: CNN.com 뉴스텍스트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4): 7-40.
- 김병건 (2016) 「신문 보도문 직접 인용의 비판적 담화 분석」, 『인문과학연구』 48: 115-139.
- 김순미 (2013) 「번역 텍스트 내의 정치적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 CNN의 ‘아랍의 봄’ 보도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2): 65-102.
- 김용진 (2004) 「신문 뉴스 인용문의 담화 기능: 미국 신문의 9-11 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11(2): 19-42.
- 김정남 (2005) 「신문 기사 인용문의 특성에 대하여」, 『국어학』 6: 277-294.
- 박지영 (2017)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비판적 담화 분석: 한일 외교 당국 웹사이트에 소개된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24(3): 25-52.
- 서정수 (1994/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부.
- 신진원 (2014) 「‘세월호 사고’에 관한 한·미 신문 사설 비교 연구: 평가어 체계를 기반으로」, 『담화와 인지』 21(3): 123-143.
- 오미형 (2008) 「외신 기사 번역 고찰: 인용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6(1): 137-154.
- 이준웅, 양승목, 김규찬, 송현주 (2007) 「기사 제목에 포함된 직접인용부호 사용의 문제점과 원인」, 『한국언론학보』 51(3): 64-90.
- 장인봉 (2011) 「신문 텍스트에 나타난 직접인용 분석」, 『수사학』 14: 61-100.
- 최희경 (2016) 「코퍼스 분석에 기반한 한국어 기사문 번역과 비번역의 문체 비교 연구」, 『통역번역학』 18(1): 231-255.
- 홍정민 (2014) 「국내 언론사 뉴스 번역사의 번역품 품질에 대한 고찰 - 체스터만의 규범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5): 287-331.
- Bell, Allan (1991) *The Language of News Media*. Oxford and Cambridge: Blackwell.

- Mossop, Brian (1978) "Who is addressing us when we read a translation?"  
*TextconText*, 2: 1-22.
- Rich, Carol (1999) *Writing and Reporting News. A Coaching Method*, (3rd ed.)  
Belmont: Wadsworth.
- Glasgow University Media Group (1980) *More Bad News*. London: Routledge.
- Thompson, Geoff (1996) "Voices in the Text: Discourse Perspective on  
Language Reports." *Applied Linguistics*, 17: 501-30.
- van Dijk, Teun (1988) (1988) *News as Discourse*. Hillsdale, NJ: ERA.

[Abstract]

### Translating direct quotation marks in Korean and English news reports

Choi, Gyung Hee

(Pyeongtaek University)

This paper considers ways to develop criteria for translating quotation marks between Korean and English news reports, with the goal for application to translation classrooms. Research on translation of quotation or quotation marks between the language pair seems rare in news reports, particularly for training purposes (exceptions include Oh 2008, Kang 2008b). As a translator trainer and researcher, the author feels the need to produce a reference point, however rough it may be, with hopes to provide a more systematic approach to translation in this subfield. The paper uses Geoff Thompson (1996)'s four dimensions of quotation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e data for this paper include 240 news articles from three Korean newspapers and two American newspapers, as well as translations of one of the Korean newspapers on the topic of the two US-North Korea summit meetings held in 2018 and 2019.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quotation marks in headlines of the source text may be deleted from the target text when the quoted part cannot be found in the body of the text, which also applies to quotes from an unspecified source as well as full quotes used with a subjective reporting verb.

- ▶ Key Words: quotation marks, Korean and English news reports, translation classrooms, four dimensions of quotation, a reporting verb
- ▶ 주제어: 인용부호, 한국어 및 영어 뉴스 기사, 번역교실, 인용의 4가지 차원, 전달동사

최경희

평택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통번역학과 조교수

gchoi@ptu.ac.kr

관심분야: 통번역교육, 체계기능언어학, 기독통번역

논문투고일: 2019년 11월 3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5일